

박순녀 문학의 젠더 주체와 ‘불온’의 재현 논리

정미지*

차례

1. 서론
2. 젠더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불온’의 감각
3. 이데올로기의 탈젠더화와 정치적 여성 주체의 불/가능성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70년대 초반 발표된 박순녀의 소설을 대상으로 냉전 체제 하의 여성의 위상과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독해하였다. 지금까지 박순녀의 소설은 「어떤 과리」를 중심으로 하여 60~70년대 참여 문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들은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한 여성의 문제, 그녀 자신의 월남 체험, 그리고 정치 현실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참여문학의 자장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박순녀 문학의 의미를 ‘불온’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궁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냉전 체제의 효과적 통치 방식으로서의 ‘불온’이 여성작가의 시선을 전유함으로써 냉전의 통치 체제는 물론 남성을 우위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박순녀의 소설은 남성과 불화하는 가정 내 여성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에 놓여 있는 여성을 재현한다. ‘불온’은 냉전 체제의 통치 권력과 주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내에 갇혀

* 성균관대 박사과정 수료

있는 여성을 냉전 체제의 지배를 받는 ‘남성’과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함으로써 억압적 정치 현실과 위계적 젠더 체계를 동시에 포착한다. 박순녀는 더 나아가 냉전 체제 내의 여성을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여성 인물은 스스로 ‘불온한 존재’가 되어 여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지형에 변화를 피하고 ‘불온’의 감각이 포착되는 순간의 허위적 구조를 통해 냉전 체제를 지탱하는 폭력적 원리와 불균등한 젠더 윤리를 폭로한다. 박순녀 소설에서 재현되는 ‘불온’은 냉전 체제의 억압적 사회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장면이자 이중의 타자로서의 여성의 현실을 구조화하는 메타포였다.

핵심어 : 박순녀, 불온, 불온한 여성, 젠더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 여간첩, 『영가』

1. 서론

이 글은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되었던 박순녀의 소설을 대상으로 냉전 체제 하의 ‘불온’이 젠더 주체를 둘러싸고 어떻게 중첩·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순녀 소설에 나타난 젠더 주체의 이데올로기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냉전 시기 여성 작가의 젠더 의식과 그 정치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순녀는 1928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1945년 월남하였다. 1950년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케이스위카」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입선되면서 문단에 들어섰다. 2년 뒤인 1962년 『사상계』에 「아이러브유」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생활을 시작하였고 1970년 동백림 사건을 다룬 「어떤 과리」가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박순녀의 「어떤 과리」는 1970년 4월 『현대문학』에 발표된 뒤 『문학과지성』(1970.9)에 재수록되었는데 이듬해 일본 잡지에 이 작품이 번역되어 소개되는 등 많은 화제를 낳았다. 그런데 「어떤 과리」

가 그토록 주목받았던 이유는 동백림 사건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익은 「어떤 파리」가 시민문학론과 리얼리즘 논의로 이어진 60년대 참여 논쟁에 하나의 문제성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참여 논쟁 이후의 문학과 사회, 문학과 정치라는 과제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한다.¹⁾ 박순녀의 「어떤 파리」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언론과 증언에의 자유를 박탈당한 군사정권의 정치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으로 평가되면서 이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어떤 파리」를 기준으로 그 진폭을 논하게 된다.

박순녀는 「어떤 파리」를 쓰고 나서 “뜻하지도 않게 정치”라는 것과 대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 세상에 ‘언론자유’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파리」를 참여 문학에의 관심과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로 파악하면서도 자신이 늘 고통을 당했던 삶의 이력의 한 줄기로 이해한다. 그것은 ‘모범생’이 될 수 없었으며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 했던 것처럼 “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말썽”이었던 그녀 자신의 삶과도 일맥상통한다.²⁾ 자신의 소설이 대부분 직접 살아온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과 체험이라는 박순녀의 말 역시 그녀의 소설이 여성으로서의 시선을 배제한 사회참여나 정치성을 논하기 곤란함을 방증하는 것이다.³⁾ 참여 문학의 경향으로 이해되었던 「어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녀의 문학을 ‘불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독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박순녀가 재현하는 ‘불온’에는 정치·사상적 현실을 바라보는 젠더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불온’은 사전적으로 “온당하지 않음”, 또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으로 명시되어

1) 김병익, 「정치와소설-「어떤파리」에 발단하여」, 『문학과정성』 창간호, 1970.9, 21쪽.

2) 박순녀, 『여자여 나의 여자여』, 유림사, 1978, 257쪽.

3) 박순녀, 『2005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54: 박순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39~140쪽.

있다. ‘불온’은 이미 일개인을 향한 제도적·도덕적 권력 체계가 전제되어 있으며 체제를 균열 내는 정체성의 표지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불온’은 ‘빨갱이’, ‘괴뢰’와 같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와 더욱 밀접하다. 식민지기부터 ‘불온’은 독립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과 같이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식민과 피식민의 권력 관계를 해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정치적 의미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이러한 불온의 용례가 급격하게 해체되었다가 한국전쟁을 거친 뒤 ‘불온’은 분단된 현실에서 다시금 ‘북한’을 배후에 둔 정치·사상적 측면과 관련을 맺는다.⁴⁾ 해방 이후의 ‘불온’을 탐색하는 일은 냉전과 독재의 시대에 권력의 통치성과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의 대항적 성격을 궁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온’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성’이 놓인다는 것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불온성은 여성 섹슈얼리티·젠더를 둘러싼 제도적·도덕적 규율 및 통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성의 불온은 여성성을 위반하거나 위협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담론화 되어왔고 따라서 ‘불온한 여성’이라 함은 젠더 규범에 균열을 내는 여성으로 수식되었다. 지금까지의 여성 문학 연구는 ‘여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젠더 규범에 억압당해왔던 여성의 불평등성을 고찰하거나 젠더 규범에서 이탈, 혹은 그러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여성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했던 여성 주체와 그 가능성을 독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⁵⁾ 임유경은 ‘불

4) 임유경은 1960년대 불온과 문학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근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불온’의 의미가 형성되고 변용된 과정에 주목하는데 ‘불온’의 화용론적 의미망을 살피고 ‘불온’의 개념적 특징을 지정학적·역사적 성격, 관계적 성격, 유동적 성격 세 가지로 정리한다.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4 참조.

5) 여성문학·문화 연구는 1990년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여성작가들의 작품발굴과 재해석으로부터 2000년대 여성 작가들의 등단과정에 대한 연구, 여성잡지 연구, 여성교양 담론에 대한 연구 등 문학제도사와 문화사, 일상사 등 학제간 연구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김양선은 『여성문학연구』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찰한 바 있는데 기존 정전을 해체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정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여성문학 연구의 일차적 목적을 그 성과로 밝히고 여성주의 및 젠더이론 창출의 한계를 지적한다.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한국여

온'의 의미가 정치·사상적 차원을 넘어서 불온한 것의 목록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존재들이 기입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⁶⁾ '여성'도 그 대상 중 하나로, '타자'를 구별하는 경계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여성의 '불온성'은 실상 이러한 정치·사상적 '불온'과는 의미를 달리하며 정치·사상적 '불온'으로부터 여성만을 추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냉전 체제 하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점유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는 언제나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불온'은 냉전의 시기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식이었다. 권력은 '불온'이라는 언어를 매개로 '신성한 권력'의 자리를 점하고 자신을 표상하였다.⁷⁾ 냉전 이데올로기가 젠더의 권력구조 내의 약자로 자리하고 있던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 젠더를 중심으로 작동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누군가를 위협하고 착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포함과 배제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데 그 배제의 대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여성화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남성성 내부에 젠더 정치가 존재하듯 여성은 이미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다.⁸⁾ 여성은 위계적 젠더 체계 안에 놓임으로써 냉전 체제와 그 통치성에 지배당하는 동시에 배타시되는 이중적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 주체의 '불온'이란 젠더이데올로기와 냉전이데올로기라는 두 겹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박순녀 문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여성인물을 성과 사랑의 주체로 재현했다고 분석한 이선미⁹⁾, 박순녀의 월남체험을 통해 그녀의 작품에서

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호, 2012 참조. 그밖에 여성문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이영아,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26호, 2011.

6) 임유경,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15권, 한림과학원, 2015, 198~199쪽.

7)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4, 28~29쪽.

8) R.W.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69쪽.

9)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

드러나는 반공주의의 의미를 파악한 이명희¹⁰⁾, ‘월남 여성 작가’라는 정체성을 통해 주체적 태도로서의 여성 인물의 형상에 주목한 김윤선¹¹⁾ 등 박순녀의 월남 체험에서 비롯한 분단과 반공주의 문제는 물론 월남 여성 작가라는 정체성에서 기인한 여성 주체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박순녀의 작품은 성과 사랑이라는 사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주체의식이 각 작품에 동시에 포착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불온’은 박순녀 문학에서 재현되는 젠더와 이데올로기적 현실의 유기성을 구명해줄 것이다.

이 글은 냉전과 독재의 시대를 거친 여성 작가가 ‘불온’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를 어떻게 재현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안온한 체제를 뒤흔드는 ‘불온’을 재현한다는 것은 체제 혹은 그 체제 내 존재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주체화 과정이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자기와 관계를 맺어 하나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체는 사이에 있는 것이자 정체성들의 교차이다.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이 연결망의 특징은 언제나 불가능한 동일시, 그것을 언술하는 그들 혹은 그녀들이 구현할 수 없는 동일시를 내포한다고 말한다.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불온성’은 바로 타자가 부과하는 정체성을 부인함으로써 두 정체성들 사이의 틈새를 만드는 ‘정치적 주체화’의 구현이다.¹²⁾ 젠더적 시선을 전유한 ‘불온’의 감각과 형상은 정치·사상적 불온의 개념을 간섭하고 초과하여 여성을 타자로 한 지배 체제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냉전 체제 위에 놓인 젠더 주체의 각기 다른 형상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젠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29, 2006.

10)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월남 작가 박순녀의 경우」, 『아시아여성연구』 47(1), 2008.5.

11)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2010.6.

12)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112~122쪽.

2. 젠더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불온'의 감각

박순녀의 소설 「잘못 온 청년」과 「생명 안치소에서」에는 남편과 불화하는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잘못 온 청년」은 전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별로, 「생명안치소에서」는 갈등의 화해 없는 봉합으로 끝을 맺는데 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위기에 놓인 여성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근대적 결혼 제도가 등장한 이래로 이혼은 언제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여성의 이혼 청구는 급격하게 증가되었지만 젠더적 질서에 기준한 관습법과 여성에게 가해진 퇴폐와 방종의 낙인은 근대적 규율과 전근대적 규범이라는 이중적 구속으로 작용했다.¹³⁾ 여성이 이혼을 감행한다는 것은 파탄의 시시비비를 떠나 여성에게 가해질 왜곡된 시선을 감내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박순녀 자신이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¹⁴⁾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에 “법률과 윤리도덕, 관습, 전통…… 그런 모든 것”을 지키며 살 때의 편안함을 이해하지만 “안하면 되는 일”을 했을 때 가해지는 “흉한 꼴”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고 고백한다. 아이 둘을 가진 이혼녀라는 조소를 감당해야 함은 물론 생존을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런

13) 식민지 시기 근대적 이혼 제도와 여성 주체에 관해서는 소현숙,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1920~30년대 여성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 2014; 김윤정, 「식민지 시대 관습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 2014 참조.

14) 박순녀는 해방기 무렵 결혼을 한 후 한국전쟁 외중에 이혼을 하고 1958년 소설가 김이석과 재혼한다. 박순녀는 그녀의 구술채록에서 김이석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의 경험을 ‘고백’처럼 주저하듯 털어놓는다. “뭘, 얘기가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우선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요. 학생 때 학생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결혼한 그 날부터 후회해 해가지구서, 결국은 인제 헤어졌는데…” 구술의 내용은 김이석과의 결혼생활과 작품 활동이 주를 이루며 전남편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 구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박순녀, 앞의 책, 72쪽.

데 그녀는 자신의 “안하면 되는 일”을 “반체제적인 모든 행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달을 우습게보지 말란 말예요. 제2차 대전 때 불런서의 레지스탕스들의 시작은 깡패들이었던 말예요. 깡패들이 시작한 그 운동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불의를 미워하며 장기간 지하에서 이어져 나갔답니다.”¹⁵⁾ 여성의 이혼을 일종의 혁명으로 위로했던 박순녀의 인식은 위계적 젠더 관계가 억압적 정치 체제와 포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어디까지나 “남자 편”이기에 여성의 이혼은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¹⁶⁾ 박순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가정 내 남녀관계의 균열과 통합의 형상을 ‘불온’의 감각으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잘못 온 청년」은 해방 후에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쟁이 발발한 직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월남민 화자 ‘나’와 그의 남편, 그리고 이홍섭, 고기범 그리고 홍익재라는 월남청년 셋을 중심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나’와 남편이 각각 청년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젠더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불온’의 의미망을 보여준다. ‘나’는 연애결혼 직후에 “진보적인 청년이 참을 수 없는 진부한 본성”을 드러낸 데 대한 보복으로 스스로에게 “고립이라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의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를 대신하여 비참하고 불행해져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북한 진주군인 소련당국에 데모를 일으킨 함흥 학생사건의 청년들이 추격을 피해 삼팔선을 넘는다. 세 청년의 방문은 ‘나’에게 급작스러운 것이었지만 고향에서 사촌과도 같이 알고 지냈던 홍섭과 그 친구들이었기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오히려 그들의 잦은 방문은 고립을 자초하고 있던 생활에의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나’의 집 다다미방에서 조용히 부르는 청년들의 삼중창에

15) 위의 인용문은 박순녀 자신의 말이 아닌 어느 대학교수의 말을 그녀가 옮긴 것으로 반체제성을 의미화한 교수의 말이 이혼을 경험한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박순녀, 『여자여 나의 여자여』, 유림사, 1978, 246~248쪽.

16) 위의 책, 21쪽.

‘나’의 감정이 휘말리기도 했으며 그들이 미군부대에 들어간 후 가끔씩 띄우는 엽서는 희미해져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청년들의 존재는 그녀의 남편에게는 비아냥의 대상일 뿐이었다. 청년들이 육사에 들어가자 남편은 청년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치라며 군인으로서 듣기 거북한 언사를 던진다.

“하하…….” 그 사람은 가가대소했다. “자네 셋이 승패를 좌우해?”

“그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내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자네들은 군인이 되고파서 육사에 갔어? 밥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우린 일단 이 나라의 군인이 됐으니까요 나라를 지킬 생각이예요.”

“죽어가면서?”

“네, 죽어 가면서…….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단정할 수야 없지 않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이쪽이 반드시 지리라고 생각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바보 같은……. 반드시 뭐가 어디 있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더구나 자네들 힘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아닌데.”

“어리석은…….” 하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에 힘을 주며 뇌까렸다.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청년들은 얼굴 가득히 추악을 보는 표정을 담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의 남편은 청년들에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보다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나’의 눈에 그것은 청년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모욕에 지나지 않는다. 북에서 테모를 벌이다 소련군을 피해 삼팔선을 넘은 세 청년과 안온한 생활에 젖어있는 남편의 대립은 선명하다. 목숨만을 보전하기 위해 군인에게 도망

을 종용하는 남편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세 청년의 반대편에 놓임으로써 ‘나’와의 가정생활은 물론 국가의 안위 역시 위태롭게 할 부정적 위치에 놓인다. ‘나’에게 남편은 가정은 물론 국가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 결혼생활의 위기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된다. ‘나’의 주변에서 “묘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세 청년과의 관계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에 의해 증폭된다. “직업적인 창녀보다도 더 망측한 여자가 하늘을 외면하고 저 속에 살고 있다. 출장 간 남편이 돌아와 소문만 듣게 되면 당장에 칼부림이 나리라.”¹⁷⁾ 남편은 그녀에게 “이 무의미한 상태”의 청산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남편에게 “가해자 같은 의식”을 강요하며 “가해자로서의 자책”을 기대하는 ‘나’에게 전가된다. “불길과 손해와 비현실”을 피해 사는 것이 중요할 뿐 ‘나’의 고립은 “정신박약자 같은 낙오의 비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정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몰리던 당사자가 남편에서 여성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남편이 세 청년과의 대립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불온’의 감각을 드러낸다면 ‘나’는 세 청년과 이성애적 관계로 재현됨으로써 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배태된 여성의 ‘불온’을 보여준다. 결국 그들의 결혼생활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6.25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해소된다.

이 소설은 ‘나’와 남편의 결혼 생활의 위기를 초래하는 대립의 근원을 각기 다르게 재현한다. 세 청년은 ‘나’와 남편 사이의 결혼 생활을 해체시키는 근원으로 작동하지만 ‘나’와 남편에게 다르게 인식됨으로써 이중적 표지를 지닌 인물들인 셈이다. 세 청년들은 ‘나’에게 남편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폭로시키는 상대자로, 남편에게는 ‘나’의 문란함을 방증할 ‘남성’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를 결혼생활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기 반공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대 서로를 해석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행위를

17)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창작과비평』 16호, 1970.3, 40쪽.

규제하고 단정하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방식이 된다. 이 작품은 남녀 결혼 생활의 위기와 파탄의 과정을 그리면서 남성과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젠더적 지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안치소에서」 역시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남편과의 갈등과 가정의 위기를 그리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성 화자, 그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소설가, 그리고 한밤중에 이들의 공간을 찾아온 탈주병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데 ‘탈주병’이라는 불온한 존재를 통해 국가와 가정의 동일한 통치체계를 인식하게 한다. ‘나’는 소설가와의 공동생활 초기에 ‘소설가의 세계가 갖는 무언가, 즉 “작가와 창의성, 환희와 죽음에 이르는 그들 특유의 대화, 그리고 요즘 행동성 것이 운위되는 참여에의 검토, 토론 따위, 포즈에 대한 비판정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소설가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역시 하지 못하는 극히 소극적인 지식인”¹⁸⁾일 뿐임을 알게 된다. 공동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반복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 과거 M농장에서 만났던 학생 상규가 그들의 집에 찾아온다. 부대를 도망쳐 나왔다는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의 집에 숨어든 것이다. 상규의 등장은 그들의 “장래를 상징”하는 계기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저 하룻밤을 숨겨준 뒤 정체불명의 자극에서 해방되었음에 안도한다. 그런데 그 이후 ‘나’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는 M농장에서 도피를 지속하고 있던 상규를 다시 만난다. 탈주병인 상규는 ‘나’에게 소설을 쓰고 싶다며 군대에서 겪은 폭력과 부조리의 경험을 고백한다. ‘나’는 그가 “반체제 소설”을 쓰게 될 것임을 짐작하지만 그 소설은 탈주병 상규와 ‘나’에게 욕망을,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욕망을 꿈꾸게 하는 기제가 된다.

‘나’는 상규의 편지와 한 꾸러미의 소설을 받는다. 그는 “죽음의 댓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은 군대생활에 대한 “생리적인 역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소설이 인정받아 도피의 생활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18) 박순녀, 「생명안치소에서」, 『현대문학』 196호, 1971.4, 187쪽.

‘나’는 그 소설을 남편에게 권하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상규의 소설이 그것을 일깨워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규의 소설은 소설가의 욕망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닌 ‘나’와 소설가 간의 갈등을 고조시킨다. ‘나’의 바람이 소설가에게는 고작 “내가 이 시대를 고난에 차서 사는 위대한 소설가고 당신이 그 아내라는 욕망 따위”로 치부되는 것이다.

「나는 가끔 당신의 기분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나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 모양야. 그렇다면 내가 좀 물겠는데 당신은 우리가 이 공동생활을 해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소?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계산은 서 있소? 우리가 몇 번 손해를 보고나면 생명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우리의 생명을 남에게 몇 조각으로 나눠준 것밖엔 안돼.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기대하는 게 뭘이겠어? 문제되는 것 자기뿐이지. 기분을 떠나 내가 말하는 손해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나는 솔직히 말해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나 응해줄 수도 있어, 긴 주저 없이 당장이라도 말 야. 그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¹⁹⁾

소설가는 자신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있는 ‘나’에게 ‘공동생활의 해소’를 언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설가는 이혼을 ‘사랑’이나 ‘애정’의 종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계산”이 섰을 때 실행 가능한 것으로 남성인 본인보다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가 그 손해를 감수한다면 이혼을 응해줄 수 있다고 하며 사실상 이혼의 과정에서 여성이 받게 될 물질적·도덕적 손상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나라는 혼자만의 세계에 익숙한 자의 웃음과 부드러움”을 띠고서 말이다. ‘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그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던 원칙을 깨고 그것이 일종의 ‘반역’인 줄 알면서도 상규의 소설

19) 위의 책, 196쪽.

을 남편 앞에서 극찬하기에 이른다. 소설가는 “놀리듯이 미소지”으며 상규의 길을 터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나’는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남편의 치부를 자극함으로써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성에게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상규의 경우 탈주병인 그가 반체제의 소설을 통해 ‘자유’를 꿈꾼다는 것 자체로 욕망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집에 숨어 ‘헌병’이 들이닥치거나 앓을까 공포에 떨면서도 소설이 인정된다면 “기천원의 고료”로서 자신을 둘러싼 “난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체포된다. 탈주병이라는 반체제 인물이 꿈꾸는 욕망은 그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의 무의미함을 인식하지만 감히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여성 화자와 불온한 욕망을 꿈꾸는 탈주병의 존재는 동일하다. ‘나’는 상규의 욕망을 “우리집 다락 속에서 숨소리도 가려진 노파처럼 쭈그리고 앉아 오지 않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규”²⁰⁾로 인식하지만 기실 그것은 여성 화자가 견뎌내는 소설가와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다. 그들은 강고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상이한 체제 안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동질성을 지니는 것이다. 천이두는 박순녀의 『생명안치소에서』에 대해 “일상성과 비일상성 사이의 예고 없는 부딪침에서 문득 자기 일상성의 허위를 의식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한 작품”이라고 말한다.²¹⁾ 그는 일상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일상성을 애써 거부하는 작가의 반역의 자세를 고평하지만 작가는 일상성을 벗어나는 순간 탈주병과 같이 ‘불온’한 존재로 밀려날지 모르는 그 공포 역시 알고 있다.

일 년이 지나고 상규를 데리고 있었던 M농장의 주인인 ‘나’의 오빠가 정신이상을 일으킨다. 그는 누군가가 밥에 독약을 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로 “국가원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는 애원을 지속한다. 소설은 상규가 또다시 탈영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를 포함한 동네 사

20) 앞의 책, 200쪽.

21) 천이두, 「일상성과 비일상성」, 『현대문학』 197호, 1971.5, 361~362쪽.

람들이 어떤 불길함을 예감하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이진경은 불온성의 감정을 ‘정상적’ 분할의 선들을 횡단하며 밀고 들어보는 침범에서 느끼는 당혹과 그렇게 밀고 들어온 것에 휘감겨 뜻밖의 곳으로 침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라고 설명한다.²²⁾ ‘불온한 것’의 존재가 그 경계를 넘어 서서히 타인을 물들이듯이 탈주병의 존재는 ‘나’의 오빠의 정신이상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이는 다른 이들에게 역시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탈주병이 던진 “묘한 돌 한 개”는 그녀의 생활을 흔들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탈주병이란 불온한 존재에게서 느끼는 공포감은 여성 역시 가정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불온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온’에 대한 공포는 타자를 이질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나와 의 동일성을 부정하게 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정신이상에 걸린 오빠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불가능한 욕망’을 꿈꾸던 자신으로부터 가정이란 일상의 안주를 선택하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냉전 체제의 ‘불온한 것’의 존재와 가정 내 여성의 처지를 병렬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빚어내는 타자의 존재방식을 교차시켜 보여준다. 이는 위계적 젠더 체계가 냉전 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두 작품의 여성 화자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남녀관계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남편의 욕망과 변화를 기대하고 주문하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극적 반항과 심리적 반역에만 그칠 뿐 가정의 해소를 요구하지 못한다. 박순녀의 작품은 남녀 인물간의 불화와 가정의 유지가 젠더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와 그 모순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불온’에 내재된 젠더성을 폭로하면서도 ‘불온’의 감각으로 통제되는 냉전의 권력 체계가 여성을 지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녀의 문학은 여성이 젠더 규범적 이데올로기에 간혀 있음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구조

22) 이진경,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휴머니스트, 2011, 27~36쪽.

를 재현함으로써 한계를 직시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이데올로기의 탈젠더화와 정치적 여성 주체의 불/가능성

1970년 4월에 발표된 박순녀의 「어떤 파리」는 동백림 사건을 소재로 함으로써 군사정권 하의 억압적 정치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어떤 파리」는 정치 소설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 왔지만 작가 박순녀는 주인공 지연이 간첩사건으로 연루된 어릴 적 친구 진영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여성 주체와 사상성의 관계를 질문한다. 지연은 간첩사건으로 귀국한 진영에 대한 신문을 앞에 두고서 묘한 ‘감격’을 느끼고 진영에게 ‘갈채’를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진영이 그녀의 남편과 동등한 ‘간첩’으로 잡혀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연은 전란을 피해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생사를 걷는 데 대해 일종의 분노를 느끼며 “남녀결합의 투철함”²³⁾을 호소한다. 이는 진영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믿음과는 별개로 남편의 보호나 그들 아래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미는 「어떤 파리」가 정치적인 억압을 소재로 한 소설임에도 섹스와 성적 욕망,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남성과 같이 여성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박순녀 작품을 관통하는 여성의식을 논한바 있다.²⁴⁾ 이 장면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갇힌 여성을 냉전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간첩’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식민지기부터 여간첩, 즉 여성 스파이 담론은 젠더 규범 질서에 대한 순응과 이탈이라는 사회적 담론과 결부되어 나타났다.²⁵⁾ 여성 스파이가

23) 본고에서는 이 소설이 채수록된 『문학과지성』의 원문을 인용하였다. 박순녀, 「어떤 파리」, 『문학과지성』 창간호, 1970.9, 191쪽.

24) 이선미, 앞의 글, 427쪽.

지니는 비국민의 표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여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었다. ‘여간첩’은 공동체 내부의 타자인 ‘여성’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온몸으로 행사하는 중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순적 존재인 것이다. 분단 이후 냉전 시기의 여간첩은 남한 남성의 역사적 판타지가 결부됨으로써 쉽게 성애화 될 수 있는 존재였다.²⁶⁾ 특히나 반공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50~70년대 영화에서 성적 매력을 지닌 여간첩의 등장은 필수였다. 여간첩은 육체를 매개로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여성이면서도 그녀들의 사상성은 남편이나 연인에 의해 강요된 허위임이 강조된다.²⁷⁾

1950년 간첩행위로 사형을 언도받고 총살된 ‘한국판 마타하리’ 김수임이 반공서사에서 활용된 방식 역시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수임은 1960년대 이후 반공서사로서 적극 활용되는데 이적행위를 한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이 아닌 그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²⁸⁾ 이를 기록한 저자 이철주는 김수임 사건이 오늘날 되살아오는 이유에 대해 ‘기구한 운명’을 지닌 여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간첩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공산주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므로 죄의 유무성까지 다시 판단해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

25) 권명아는 전시 동원체제의 총후부인 담론을 통해 제국의 젠더정치를 규명하는데 1930년대 후반 여성 스파이 담론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방탕한 여성으로 표상됨으로써 여성이 놓인 ‘가정’의 안과 밖의 경계가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기준으로 담론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서의 여성 스파이는 신여성과 상통됨으로써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여성 정체성의 혐오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97~202쪽.

26) 천정환, 「내 귀에 도청장치-간첩의 존재론과 반공영화 텍스트의 문화정치」, 권보드레 외,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190쪽.

27) 냉전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여간첩 표상에 대해서는 이순진, 「1950년대 공산주의자의 재현과 냉전의식」, 김소연 외, 『매혹과 혼돈의 시대』, 도서출판 소도, 2002;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33, 2014 참조.

28) 김수임 간첩사건이 발생한 1950년 당시의 언론보도 역시 김수임과 이강국의 애정 관계가 중심이 되지만 그와 더불어 김수임 개인의 방탕함과 문란함을 부각하고 있다. 「여간첩 김수임의 전락기」, 『경향신문』, 1950.6.18, 2쪽.

이다.²⁹⁾ 이러한 시각은 1969년 출간된 오제도의 『추격자의 증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해방 이후 사상검사로 널리 알려진 오제도가 직접 수사한 공안 사건들을 엮은 것으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권장사까지 실려 있는 등 철저히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제도는 김수임이 간첩죄로 사형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는 공산당원이 될 인물도 아니”³⁰⁾었다며 김수임과 공산주의와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자칫 반공주의의 균열을 초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간첩에 대한 공통적인 이 같은 해석은 여성 주체와 사상성의 결합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남성 지배 계급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박순녀는 「어떤 파리」의 한 장면을 통해 행위 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가 박탈당하는 여간첩의 존재방식을 포착하고 위계적 남녀관계에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떤 파리」가 여성을 정치·사상적 ‘불온한 존재’로 만들으로써 주체로서의 여성을 포착하고자 했다면 「대한민국의 거지」는 ‘불온한 존재’로서의 여성이 직면해야 하는 두 겹의 이데올로기를 재현한다. 신의주 출신의 현세는 “밥을 짓지 않아도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첩을 희망하고 “미군만 보면 웃음이 만면에 퍼져가지고 마구 달려가 그 앞에 막아서는 버릇이 있는” 성적 윤리나 여성적 규범과는 무관한 여학생이다. 현세는 ‘첩’이라는 어감에 저항을 느끼는 여느 친구들과 달리 양공주에게나 보내는 미군들의 희롱에도 아랑곳없는 여학생인 것이다. 현세는 친구의 애인을 시험해 본다는 조건으로 만나본 후 “합격이면 자기가 그 남자와 사랑해

29) “그것은 김수임이 비록 붉은 스파이였을망정, 그녀가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에 속고, 사랑을 위해 죽었다는 것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교묘히 이용하여 희생시키면서도 사랑에 올랐다는 기구한 운명의 연인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은, 입을 사랑했던 것이 유죄인가 하는 문제를 사상적으로 되새겨 보게 했으며, 인간의 죄와 악은 살인죄까지 포함하여 「절대적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상대적인 것」이라는 진리를 김수임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혁주, 「여간첩 김수임」, 삼성출판사편집부 편, 『세계기록문학전집 5』, 삼성출판사, 1966, 389쪽.

30) 오제도, 「국제여간첩 김수임」, 『추격자의 증언』, 희망출판사, 1969, 28쪽.

버리고 불합격이면 「그 남자 시시하다 애, 하는 보고」를 할 만큼 개방적이다. 물론 다른 이들의 시선에는 “미치광이”에 불과한 여성일 뿐이다.

젠더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현세는 월남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적 면모를 보인다. 현세는 자신의 고향을 미국이라 할 만큼 미국 지향적이며 성조기에 별을 하나 더 그려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또 다른 하와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녀의 미국 지향성은 이 소설에서 미군들을 향한 애정으로도 재현되지만 미국은 ‘자유주의’나 ‘반공주의’의 환유라기보다 탈경계를 의미화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진하야, 우리에게 왜 나라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니? 설혹 있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강제를 당해야 하니?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의 주민도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야.」

「…」

「참 어처구니없지. 나무가 없는 우리의 붉은 산을 놓고 나무가 무성한 남의 나라의 산보다 붉은 우리 산을 더 정답다고 생각하자니 참…」

「…」

「어느 날 밤 우리는 꿈을 꾸지 않니. 꿈에서 깨나 문득 북쪽을 돌아다 볼 때,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기를 느끼는구나…」

「…」³¹⁾

현세가 미국을 동경하는 데에는 한 나라의 경계, 대한민국의 국경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다. “세계 어느 곳의 주민”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내면에는 현세를 억압하고 있는 ‘나라’라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념으로 갈라진 분단된 땅에서 어느 한 쪽으로서의 선택이 곧바로 다른 한쪽에 대한 배타적 부정을 의미하기에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다. 월남자 현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단지 이남

31) 박순녀, 「대한민국의 거지」, 『월간중앙』 3권12호, 1970.12, 370쪽.

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과 북에 대한 부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현세가 자신의 고향인 ‘북쪽’을 돌아볼 때마다 떠올리는 미국은 자기 존재를 가두는 경계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제3의 공간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냉전 체제와 젠더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맞서야만 한다. 여성을 주체로 한 ‘불온’이란 냉전적 틀을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사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여성상을 구획하는 젠더 질서에 대한 위반이다. 즉,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이 냉전적 사유의 틀을 탈피함으로써 남성 주체를 우위로 하는 권력 체계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물들의 이러한 시도는 결코 쉽지 않다. 진하는 대학에서 일어난 사상투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찾아간 어느 좌경학생과의 산책길에서 “사상 강의 대신에 뜨거운 포옹”을 받아야 했으며 6.25가 발발한 후 현세 역시 큰 집에 고용되었던 가정교사였던 탓에 “자본주의 브루쵸아”라는 죄목으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고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을 경험하고 만다. 진하는 더 이상 사상 강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현세는 진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빨갱이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대한민국의 거지가 되겠다.”³²⁾ 남성 주체에 의한 냉전의 폭력은 여성의 몸을 훼손하며 여성을 냉전 이데올로기의 소유물로 전락시킨다. 남성이라는 성적 주체에 대한 동일화는 여성을 성적 객체화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남성 집단의 연대의식은 여성을 ‘희생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³³⁾ 여성 인물들은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남성 주체의 섹슈얼리티의 대상이 되자 ‘불온한 존재’이길 포기하고 냉전 체제의 틀 속에 자리한다. 이는 여성의 육체가 남성 주체로부터 정복되는 순간 젠더 이데올로기는 물론 냉전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여성의 이중적 타자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박순녀의 장편소설 『영가』는 ‘불온’의 감각이 생산되는 순간의 허위성을 구조화함으로써 남녀 동등한 젠더 윤리를 역설한다. 이 소설은 여

32) 위의 책, 376쪽.

33)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9쪽.

성 화자 진세와 월남민인 화가 강식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다. 진세와 강식의 결혼 이후 강식이 복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점차 미치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남북이 갈라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자를 두고 홀로 남으로 내려온 남자들은 대부분 남쪽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진세는 그러한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남성 역시 복에 남겨진 처자를 위해 지조를 지키는 것이 도리이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쟁미망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남편을 잃고도 홀로 자녀를 키우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함은 물론 생존을 위해 생계전선에 나서야 했다. 경제적 활동에 나선 미망인들은 대개 남편의 부재에서 오는 방종과 문란의 낙인에 찍혀야 했으며 따라서 미망인의 재혼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재생산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³⁴⁾ 전쟁미망인의 소설적 재현이 미망인을 희생양 삼아 문란한 사회질서와 국가권력을 바로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었다면³⁵⁾ 남성은 그 시선에서 비껴나 있었다. 『영가』는 전쟁미망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아닌,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남성’을 초점화하여 비튼다. 비록 진세는 강식의 청혼을 거부하다 결국 그와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자신이 북쪽 아내

34) 이입하는 1955년 이래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미망인의 수를 토대로 그 수의 변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 재혼한 미망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군경 미망인의 경우 재혼자는 1956년 5만 9,914명 가운데 1,006명(1.9%), 1959년 5만 8,79명 가운데 30명(0.1%)에 불과했다.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17~218쪽.

35) 미망인의 소설적 재현은 염상섭과 정비석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논의로는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2004.4;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권, 2009; 김은하, 「전후 근대국가화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정비석의 『유혹의 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호, 2010.12; 이상화, 「전쟁기의 여성젠더 의식-정비석의 『세기의 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7권 제2호, 2011.12 참조.

의 “대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진세의 두려움은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 강식은 1.4 후퇴로 월남한 후 다리를 저는 딸을 두고 나왔다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으며 더구나 재혼을 했으므로 통일을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강식을 더욱 자책하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강식은 진세에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한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가면 딸을 만날 수 있으니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한다는 것이다. 진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진세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분열하고 있는 강식의 상태를 예감한다. 그리고 강식을 찾아온다는 여자가 일본의 좌익 사상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공포에 떨며 “불고지죄”를 떠올린다. 강식과 진세의 불안은 실상 이데올로기와는 전연 무관한 상황에서 그가 좌익 사상과 연관된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불고지죄는 국가안전과 국민생존이라는 국가보안법 논리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 실상 불고지죄는 그 본질과 무관하게 이적의 요소만 있다면 무엇이든 고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폭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강식과 진세가 느끼는 공포란 이념 없이 접촉만으로도 ‘불온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불온’의 형식적 허위성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표라는 인물의 소식을 전해 듣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기표는 진세가 강식을 만나기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로 좌익 사상을 좇아 진세를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인물이다. 기표는 진세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친구인 형주를 통해 기표의 소식을 전해 듣는 도중 ‘불온’에 대한 공포의 순간은 ‘불륜’의 장면과 겹쳐지기도 한다.

「혹시」

36) 정태욱, 「불고지죄에 대하여」, 『민주법학』 3호, 1989 참조.

「혹시?」

「우리들의 밀담을 엿들은-」

「무슨 밀담?」

「형주씨가 불온 인물을 접촉한……」

(…)

「뒤집어 쓸 것이 있어야 뒤집어 쓰지요?」

「무엇 무엇과 접선! 이런 게 있잖아요」

「확실히 노이로제군」

(…)

「친구 이야기를 한마디하고 이렇게 떨어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말예요. 결 국 우리에게는 섹스밖에 없어!」³⁷⁾

기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방갈로에 들어간 진세와 형주는 자신들을 엿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불온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기표가 ‘불온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사상과는 무관하게 ‘불온’의 공포를 조성시킨다. 그러나 그 남자는 형주의 불륜을 의심하는 그의 아내의 고용인에 불과하다. 불륜을 포착하려는 감시자의 시선은 ‘불온’의 공포를 가져오는 권력자의 시선으로 오해된다. “노이로제”처럼 과도하게 증폭된 공포의 감정이야말로 ‘불온’의 순간을 재현하는 유일한 형식이다. 그 내부는 단지 친구의 이야기로도, 불륜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텅 빈 기표인 것이다.

대신에 이들이 겪는 공포와 불안의 실체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진세를 향한 사랑 혹은 집착에 의한 것이다. 강식과 기표는 사상을 좇아 이동한 남성이다. 이해령은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란 개념을 통한 개인의 존재-장소에 대한 상상과 이동-배치의 규율이 특정한 사상의 지정학적 경계에 따라 작동된다고 말한다. 38선을 경계로 한 월남이나 월

37) 박순녀, 『한국문학전집 74. 영가』, 삼성출판사, 1972, 170~172쪽.

북이 곧바로 사상이 깃들어 있는 신체의 이동을 의미하며 한국의 사상통체가 존재-장소에 대한 상상과 의사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어 왔다는 것이다.³⁸⁾ 강식이 북에 가족을 두고 월남했음은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사상을 선택한 것이 된다. 기표의 일본행 역시 북으로 가기 위한 이념적 이동이었다. 그들의 이동과 머뭇은 배타적으로 구획한 이념적 공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상상마저도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순녀는 이념을 '선택'하는 남성과 이념과는 무관하게 남겨지는 여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어떤 과리」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된 진영이 간첩의 '아내'가 아닌 '간첩'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주인공이 느낀 감격의 장면을 통해 역설적으로 의미화된다.

코넬은 남성성에서 탈출하는 젠더 위반을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립을 겨냥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말한다. 탈출의 정치는 젠더 이분법을 재단 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모호성을 통해 전체 젠더 질서를 가로지르는 변화의 잠재력을 대표한다는 것이다.³⁹⁾ 사상을 좇아 떠난 남성을 기다리는 쪽은 언제나 여성이었으며 남성의 감정은 재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남성 젠더를 사상성의 신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상성을 거스르는 감정의 주체로 재현함으로써 냉전의 구도에 놓여있는 젠더의 역할을 뒤바꾼다. '불온'의 감각이 남성의 사상이 아닌 감정에 의해 창출됨으로써 '불온'의 의미를 공백화함은 물론 젠더우리를 위반한 남성의 혐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지」와 『영가』는 이데올로기를 탈젠더화함으로써 남성적 권력 체제를 부정하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불온한 여성'이란 냉전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탈피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존재였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위험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닌 남성적 권력 체제가 부여한 여성의 정체성을

38) 이해령,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2012.2 참조.

39) R.W.코넬, 앞의 책, 324~326쪽.

부인하는 것이다. 박순녀는 ‘불온한 여성’ 되기의 과정을 재현하는 것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젠더가 맺는 관계의 구조를 역전시킴으로써 여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대한민국의 거지』의 현세와 진하는 냉전의 남성적 폭력 속에서 ‘냉전 체제’의 ‘여성’임을 강제당해야 했으며 『영가』의 강식은 통제하지 못한 감정의 범람으로 진세와의 결혼을 실패로 이끌지만 여성의 주체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박순녀의 소설은 여성의 정체성을 의문시하고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만든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획득하고 있다.

4. 결론

이 글은 1970년대 초반 발표된 박순녀의 소설을 대상으로 냉전 체제하의 여성의 위상과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독해하였다. 지금까지 박순녀의 소설은 「어떤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60~70년대 참여 문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들은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한 여성의 문제, 그녀 자신의 월남 체험, 그리고 정치 현실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참여문학의 자장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박순녀 문학의 성격을 ‘불온’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궁구하고자 하였다. ‘불온’은 ‘북’을 배후로 한 정치·사상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와 밀접하다. 본고는 냉전 체제의 효과적 통치 방식으로 작동되었던 ‘불온’이 여성작가의 시선을 전유함으로써 냉전의 통치 체제는 물론 남성을 우위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박순녀의 「잘못 온 청년」과 「생명안치소에서」는 남성과 불화하는 가정 내 여성을 중심에 놓는다. 「잘못 온 청년」은 불화의 근원을 젠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재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며 「생명안치소에서」는 탈주병과 여성을 병렬적

으로 배치함으로써 젠더 이데올로기 내의 여성을 '불온'의 감각으로 재현한다. '불온'은 냉전 체제의 통치 권력과 주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내에 간혀 있는 여성을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함으로써 억압적 정치 현실과 위계적 젠더 체계를 동시에 포착한다. 박순녀는 여성을 젠더 위계적 구조에 놓여 있음을 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냉전 체제 내의 여성과 젠더 관계를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어떤 파리」와 「대한민국의 거지」에서 여성 인물은 '불온한 존재'가 되어 여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지형에 변화를 꾀하고 『영가』는 '불온'의 감각이 포착되는 순간의 허위적 구조를 통해 냉전 체제를 지탱하는 폭력적 원리와 불균등한 젠더 윤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박순녀 소설에서 재현되는 '불온'은 냉전 체제의 억압적 사회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장면이면서 이중의 타자로서의 여성의 현실을 구조화하는 메타포였다.

본고에서 다룬 박순녀의 소설들은 70년대 초반의 비교적 짧은 시기에 발표된 소설들이다. 그러나 이 소설들의 시간적 배경은 해방기부터 1970년대 현재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박순녀는 분단과 전쟁의 시기를 여성 홀로 월남하여 경험했으며 이혼 후 재혼을 하기까지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부담 역시 견뎌내야 했다. 여성 작가에게 닥친 갑작스런 '정치'의 무게도 남달랐을 것이다.⁴⁰⁾ 따라서 그녀의 지나온 경험과 몸담고 있는 사회 현실이 '여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현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여성이 과연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불온'은 냉전 체제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권력 주체의 표상으로 기능하였는데 '불온한 존재'조차 되지 못하는 여성의 위상은 냉전 체제 내 여성의 재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40) 박순녀는 「어떤 파리」가 발표된 후 일본의 『아사히신문』에 실리게 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설이었으므로 해외 지면 게재가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박순녀는 월남민에다 여성 작가이므로 사상적 검열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박순녀, 『2005년도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54 박순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32~133쪽.

드러난다. 박순녀는 ‘불온’을 여성적 시각으로 전유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참여문학 작가라는 위상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아닌 그녀의 문학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순녀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녀의 전 작품을 통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창작과비평』 16호, 1970.3.

박순녀, 「어떤 파리」, 『문학과지성』 창간호, 1970.9.

박순녀, 「대한민국의 거지」, 『월간중앙』 3권12호, 1970.12.

박순녀, 「생명안치소에서」, 『현대문학』 196호, 1971.4.

박순녀, 『한국문학전집 74. 영가』, 삼성출판사, 1972.

2. 단행본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97~202쪽.

권보드래 외,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190쪽.

박순녀, 『여자여 나의 여자여』, 유림사, 1978, 21면; 246~248면; 257쪽.

박순녀, 『2005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54: 박순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 2006, 72면; 132~133면; 139~140쪽.

삼성출판사편집부 편, 『세계기록문학전집 5』, 삼성출판사, 1966, 389쪽.

오제도, 『추격자의 증언』, 희망출판사, 1969, 28쪽.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17~218쪽.

이진경,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휴머니스트, 2011, 27~36쪽.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9쪽.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112~

122쪽.

R.W.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69면; 324~326쪽.

3. 논문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0, 235~262쪽.

김윤정, 「식민지 시대 관습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 성문학연구』 33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81~117쪽.

소현숙,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1920~30년대 여성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 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75~113쪽.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월남 작가 박순녀의 경우」,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8, 7~38쪽.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29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17~452쪽.

이혜령,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집, 상허학회, 2012, 133~172쪽.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4.

임유경,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15권, 한림과학원, 2015, 198~199쪽.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33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47~190쪽.

정태욱, 「불고지죄에 대하여」, 『민주법학』 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89, 105~121쪽.

Abstract

The Subjects of Gender and the Reproduction Logic of "Rebellion" in the Literature of Park Sun-Nyeo

Jung, Mi-Ji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women and the possibilities of political subjectification under the Cold War system in Park Sun-nyeo's novels published in the early 1970s. In the 1960s and 1970s, Park's novels were established as a flow of engagement literature with a focus on the book *Certain Paris*. In her novels, however, the author addressed a wide scope of topics including women's issues based on gender and love, her experiences of defecting to South Korea, and the issues of political reality. The study, thus, tri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er literature that has yet to converge into the magnetic field of engagement literature by analyzing the ways she reproduced "rebellion." It was found that "rebellion" was an effective ruling method under the Cold War system with "North Korea" in the background exclusively possessing the gaze of female writers; thus, critically revealing the male-dominant gender system as well as the ruling system of the Cold War.

In her novels, Park reproduced women in gender ideology by depicting women in disharmony with men in the family. Even though "rebellion" was a way of disclosing the ruling authority and subjects of the Cold War system, she embodied the women trapped inside the gender ideology in the same structure as "men" under

the rule of the Cold War system and accordingly captured both the suppressive political reality and hierarchical gender systems simultaneously. Furthermore, Park opened up the possibilities of resistance by placing women into new places in the Cold War system. Her female characters become "rebellious beings" themselves and try to change the topography of ideologies surrounding them. They also expose the violent principles and unequal gender ethics that sustain the Cold War system through the false structure of the moment that the "rebellious" sense is captured. The "rebellion" reproduced in Park's novels represent a scene to make the characters recognize the suppressive social reality of the Cold War system and is a metaphor to structuralize the reality of women as dual others.

Key words : Park Sun-Nyeo, Rebellion, Rebellious Women, Gender Ideology, Cold War System, Female Spy, 『Yeong-Ga』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